

최상위 국어 솔루션! 月刊 김대기

月刊 김대기
3월호

4주차
Work Book



1차 과제

3월 4주차



시가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나는 ㉠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나) 김영랑, '내 마음 아실 이'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A] 아! 그림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다)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우리가 ◎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 하늘로 오라.

[문제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6)

- ① (가), (나)에는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② (가), (다)에는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
- ③ (나), (다)에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의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신념을 그리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대조적인 이미지로 이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문제 2] <보기>는 '원형적 심상'을 설명하는 상징 사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67)

<보 기>

- 작은 배 :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수단. 부활과 재생의 요람.
- 불 : 수직적. 상승의 에너지. 공격적인 남성. 인간의 생명. 사랑. 육체의 파괴와 소멸. 정화와 재생.
- 물 : 수평적. 하강. 모성 혹은 여성. 죽음. 정화와 재생. 순환. 시간의 흐름.
- 나무 : 인간의 형상. 인간의 상승 욕구. 초월의 의지. 크고 넉넉한 인격.
- 하늘 : 공간의 영원성. 고고한 정신. 신(神). 순결. 무(無). 부재(不在).

- ① ㉠ 나룻배 : '행인'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② ㉡ 불 : 삶을 지탱해 주는 상승의 에너지로서 사랑의 열정을 환기한다.
- ③ ㉢ 물 : '죽은 나무뿌리를 적'신다는 것에서 보듯이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
- ④ ㉣ 나무 : '우리'가 함께 선다는 표현으로 보아 초월과 상승의 욕구를 가진 인간의 형상으로 읽어 낼 수 있다.
- ⑤ ㉤ 하늘 : '불'로 상징되는 모든 인간적 고뇌가 승화된 정신적 경지를 표상한다.

[문제 3] (가) 시의 소통 구조와 표현에 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68)

- ① '나는 나룻배'에서 보듯이 이 시의 화자는 '나'야. 이럴 경우 '나'는 시인의 분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
- ②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청자도 비교적 명확해. '당신은 행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현재 화자 앞에 청자가 없으니까 이 시는 독백이라고 봐야 할 거야.
- ③ 같은 구절을 시의 앞뒤에 배치하는 수미상응의 방법을 써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주고 있어.
- ④ 2연은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희생이 무조건적임을 드러내려고 한 것 같아.
- ⑤ 3연은 '나'의 무조건적 희생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에게 무관심하지만, '나'는 '당신'에 대한 믿음을 끝내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지.

[문제 4] (나)의 [시]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가정할 때,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69)

<보 기>

아! 그림다
내 혼자 마음을 나처럼 아실 분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이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련만
불빛에 연기인 듯 희미한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라 내 혼자 마음은

- ① 구체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 ②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 ③ 리듬감을 살려 내밀하고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 ④ 문법의 틀을 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 ⑤ 시적 진술을 좀 더 분명히 하여 의미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문제 5] (다)의 ㉠과 시적 정조가 가장 가까운 것은? 270)

- ①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김소월, 나의 집 -
- ② 눈이 많이 와서 / 산옛새가 별로 내려 맥이고 /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 백석, 국수 -
- ③ 바야흐로 해발 육천 척 우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 정지용, 백록담 -
- ④ 물 먹는 소 목덜미에 /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 이 하루도 / 함께 지났다고, /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 서로 적막하다고,
 - 김종삼, 묵화(墨畵) -
- ⑤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 흔들어 깨우면 /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 이성부, 봄 -

시가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송순, '면양정가'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 내 몸이 겨를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코
바람도 썩려 하고 달도 맞으려코
 밤으란 언제 좁고 고기란 언제 낡고
 시비(柴扉)란 뉘 닫으며 진 꽃으란 뉘 썰려노
 아침이 낫브거니 저녁이라 싫을소냐
 오늘이 부족(不足)커니 내일이라 유여(有餘)하라
 이 뉘에 앉아 보고 저 뉘에 걸어 보니
 번로(煩勞)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설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야
 다만 한 청려장(靑藜杖)이 다 무디어 가노매라
 술이 익었거니 벗이라 없을소냐
 불리며 타이며 켜이며 이아며*
 온갖 소리로 취흥(醉興)을 재촉커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우락 앉으락 굽으락 젓히락
 읊으락 파람하락 노혜로** 놀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 일월(日月)도 한가하다
 희황(羲皇)***을 모를러니 이 적이야 괴로구나
 신선(神仙)이 어떻던지 이 몸이야 괴로구나
 강산 풍월(江山風月)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상의 이태백(李太白)이 살아 오다
 호탕 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할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이아며: 흔들며. 또는 (계속해서) 이으며.
 ** 노혜로: 마음대로.
 *** 희황: 중국 전설상의 제왕인 복희씨(伏羲氏).

(나) 위백규, '농가'

맘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쥘 대로 쥘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4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장>

* 우배 초적: 소를 타고 가면서 부는 피리 소리.

[문제 1] (가)와 (나)의 밑줄 친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71)

- ① (가)의 '바람'과 (나)의 '청풍'은 모두 흥겹게 일을 한 다음에 느끼는 시원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 ② (가)의 '벗'은 일상적 삶을 추구하는 인물이고, (나)의 '길 가는 손님'은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는 탈속적 인물이다.
- ③ (가)의 '바람'과 '벗'은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 주고, (나)의 '청풍'과 '길 가는 손님'은 시적 배경을 부각시킨다.
- ④ (가)의 '파람'은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표현하는 것이고, (나)의 '파람'은 노동 후의 휴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 ⑤ (가)의 '바람'과 '파람'이 시상을 전환시키는 데 비하여, (나)의 '청풍'과 '파람'은 시상을 매듭짓는다.

[문제 2] (가)의 ㉠와 ㉡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72)

- ① 전원 생활에 겨움이 없어(㉠) 한가롭게 자연을 즐길 틈이 없다(㉡).
- ② 풍경은 사시(四時)로 변하지만(㉠) 그 흥취를 느낄 겨움이 없다(㉡).
- ③ 여기저기 불러 다니느라 겨움이 없어(㉠) 한가롭게 살기 어렵다(㉡).
- ④ 한가로운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일하는 즐거움을 찾기에 겨움이 없다(㉡).
- ⑤ 자연 속에서 이리저리 노니는 한가로운 정서를(㉠) 즐기기에 겨움이 없다(㉡).

[문제 3] (가)의 [A]를 모방하여, <보기>의 조건에 따라 글을 써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273)

<보 기> ○ [A]에 나타난 주제 의식을 답을 것. ○ [A]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유지할 것.
--

- 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확 트인 여름 들판에 서 보라. 향긋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푸르른 들판이 가슴속을 가득 채운다. 가장 순수하고 충만한 것을 소유한 듯한 느낌이다. 내 마음은 천지와 하나를 이루면서 한껏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이럴 때 나는 거칠 것 없는 자유와 행복감을 느끼고, 새삼 내 존재의 고귀함을 깨닫는다.
- ② 평소에 우리는 자연의 혜택을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 그러다가 이따금씩 여유가 생길 때면 문득 익숙한 배경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내 주위에 나무와 풀이 있고 머리 위에 하늘이 있고 것가에 새 소리, 물 소리, 바람 소리가 맴도는 것이다. 자연과 함께 있다고 느낄 때, 나의 마음은 이런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다.
- ③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면 늘 설렘이 앞선다. 오늘 펼쳐질 일들이,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꿈꾸는 세상이 있고 함께할 친구들이 있다.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내게는 아침 햇빛과 같이 빛나는 이상이 있어 견딜 만하다. 아침마다 나는 그런 행복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 ④ 산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만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산을 정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 올라간 것에 불과하다.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없는 길을 헤쳐 나갈 때의 기쁨! 나는 나만의 길을 사랑한다.
- ⑤ 세상은 철철이 옷을 갈아입는다. 잿빛 옷을 입었다가 푸른색 옷으로 바뀌어 입고, 그 빛깔이 짙어지면서 어스레 울긋불긋한 옷으로 치장한다. 그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로 시간이다. 시간이 세상의 빛깔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 세상이 변하고 세상 속에 있는 나도 변한다. 이렇듯 산다는 것은 세상과 함께 변화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문제 4]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74)

- ① 시어의 반복과 유사한 구조를 통해 시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 ② 의문형으로 시상을 매듭지어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 ③ 낮에서 저녁으로의 시간 경과와 함께 공간적 이동도 나타나고 있어.
- ④ 시적 화자와 다른 인물들 사이의 유대감이 잘 드러나 있어.
- ⑤ 농촌 생활의 분주함과 여유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어.

서사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주머니가 먼저 노파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노파의 이상한 도리질에 대해 물을 수가 있었다. “할머니께서 제가 몹시 못마땅하셨나 보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안방에 있는 내내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벌써 이십오 년 동안이나 그러고 계신 걸요.”

“이십오 년 동안이나!”

나는 기가 막혀서 벌린 입을 못 다물었다.

“네, 이십오 년 동안이나 허구한 날 자는 시간만 빼놓고…….”

나는 아주머니의 눈이 젖어 오는 것처럼 느꼈으나, 말씨는 침착하고 고즈넉했다.

<중 략>

그것은 육이오 동안 통에 발작한 증세였다. 동안 당시 젊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부터는 집에 숨겨 놓는다는 게 암만해도 불안했다.

어느 야밤을 타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이십 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감쪽같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게 세상은 점점 더 못되게만 돌아가 이 웃끼리도 친척끼리도 아무개가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짓이 성행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일어나는 날이 없었다. 끔찍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미더워지기 시작했다. 어리숙하고 고지식하기만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했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구셈을 익혀 주듯이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아범 있는 곳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집 나가고 나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셔야 돼요. ㉠ **입 한번 잘못 놀러 사람이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세상이예요.** 큰댁 식구들이나 작은댁 식구들이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쁜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아셨죠? 어머님.”

그녀는 힘차게 도리질까지 곁들여 가며 거듭거듭 이 ‘모른다’를 교습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 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역시 도리질까지 해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썬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 소리 한 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별안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소사와 폭탄을 쏠새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 볶듯이 나더니만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집 속에 쥐 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빨갱이가 몰러갔다는 증거도 안 몰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 붙어서 세도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 깃대꽃이엔 아직도 그쪽 기가 펠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제까짓 것들이 여기서 버터 봤자 며칠을 더 버티겠느냐는 거였다.

[A] 텃밭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내기였

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러 나갔던 시어머니가 별안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다 말예요.”

소름이 쭉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영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패잔병인 듯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이 서너 명 일제히 총부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구 해치려고 나타났다고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 하고 못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탄사람같이 드높고 쇠뿔 소리로 되풀이했다. 패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기를 쓰고 흔들여 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박력만 가셨다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도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젠 고쳐 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 드리다니요? 어떻게요?”

“당신 임의로는 못 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삼시 잡숫는 거라도 정성껏 잡숫게 해 드리고 몸 편케 보 살펴 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 해 드리겠어요.”

치매(癡呆)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의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 박완서, '겨울 나들이'

*도적 : 춘추 시대의 큰 도적. 몹시 악한 사람을 비유함.

[문제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75)

- ① 서술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 ②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을 통해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중심 사건을 체험한 주체와 작품의 서술자가 분리되어 있다.
- ⑤ 서술자의 의문과 오해가 풀려 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문제 2] <보기>는 [A]를 시나리오로 각색해 본 것이다. ㉠ ~ ㉡ 중, 새로운 내용이 첨가된 것은? 276)

<보 기>

S# 15. 집 뒤뜰

㉠ 남루한 차림의 인민군 패잔병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뒤뜰로 접근하다가 시어머니와 마주친다. 흠칫 놀라는 패잔병들과 시어머니. 짧은 침묵 속에 팽팽하게 긴장감이 흐른다.

시어머니 : (㉡ 느닷없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몰라웁!

㉢ 당황한 패잔병들, 일제히 시어머니에게 총을 겨눈다.

시어머니 : (계속하여 고개를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웁!

㉣ 이때 허겁지겁 뛰어오는 아들과 며느리, 패잔병들과 맞닥뜨린다. ㉤ 어머니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한 아들, 패잔병들을 향해 달려간다. 총성과 함께 쓰러지는 아들. 황급히 도주하는 패잔병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제 3] ㉠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말은? 277)

- ①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
 ② 제 눈썹은 보지 못한다.
 ③ 꼬리가 길면 밟힌다.
 ④ 긴병에 효자 없다.
 ⑤ 등잔 밑이 어둡다.

[문제 4] ㉡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나'의 심리와 가장 가까운 것은? 278)

- ① 모골이 오싹해 질 정도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②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다.
 ③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 흥분으로 온몸이 짜릿했다.
 ④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안타까워했다.
 ⑤ 경의를 표하고 싶을 정도로 숙연하게 감동에 젖어 들었다.

[문제 5]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할머니의 도리질'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79)

- ① 이십오 년 동안이나 도리질을 하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가 참 불쌍해.
- ② 아들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여기는 데서 오는 자책감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
- ③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져.
- ④ 자신에게 '모른다'는 연습을 시켜 결과적으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며느리에 대하여 반감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보여.
- ⑤ 온전한 상태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겠지만, 할머니의 도리질은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돼.

서사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은 옛날 화왕(花王)이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화왕을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였는데, 삼춘(三春)을 당하여 예쁜 꽃을 피우니 이는 다른 꽃보다 유달리 뛰어나다 합니다. 이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탐스러운 영기(靈氣)와 요요한 향기를 풍기므로 온갖 꽃들은 분주히 화왕을 뵈고자 하였으며, 오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합니다.

이 때, 갑자기 한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붉은 얼굴, 옥 같은 이에 깨끗한 옷으로 몸을 단정하고 홀로 맴시 있게 화왕의 앞으로 나와 말하였습니다.

“첩은 흰 눈 같은 모래밭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대하며, 봄비에 목욕하여 때를 씻고 상쾌한 맑은 바람을 쐬고 사는데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지금 임금(花王)님의 높으신 덕이 있음을 듣고 찾아왔사오니 기어이 베개를 향유(香帷)에 드리도록 임금님께서서는 허락하여 주소서.”

이 때 또 한 장부가 있어, 벼옷에 가죽띠를 띠고, 머리는 백발인데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쇠약한 걸음으로 허리를 굽히고 와서 말하였습니다.

“저는 서울 밖 큰 길가에 사는데, 아래로는 창망한 들 경치를 임하고 위로는 높고 험한 산의 경치를 바라보고 사는데 이름은 백두옹(白頭翁)*이라 하나이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드릴 것은 임금님은 좌우에서 온갖 물건을 충족하게 공급하여 고량진미(膏粱珍味)로써 배를 불리고, 차와 술로써 정신을 맑게 하나, 건포(巾布)를 충분히 저장하여 놓고, 모름지기 좋은 약으로 원기를 돋우며, 모진 돌로써 온갖 독소를 깨끗하게 없애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마(絲麻)*가 있으나 관괴(管蒯)*를 버리지 않고 모든 군자들은 대궐(代匱)*하지 않음의 없다 하는데, 임금(花王)님께서서는 이 뜻이 어디 있는지 아시지 못하겠나이까?”

하였습니다. 그런데 흑자는 말하기를,

“둘이 왔는데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리겠나이까?” 하였다 합니다.

화왕은

“장부의 말이 또한 도리가 있으나, 아름다운 사람은 얻기도 어려우니 장차 어찌하면 좋을꼬?”

하였습니다.

장부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저는 임금님께서 총명하여 옳은 이치를 아시는가 생각한 까닭으로 왔나오나 지금 보니 곧 그렇지 못하옵니다. ㉡무릇 임금된 자는 간사하고 요망한 자를 친근히 하지 말고 정직한 자를 멀리 아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맹가(孟軻)는 불우하게 몸을 마쳤고, 풍당랑(馮唐郎)은 몰래 머리를 희게 하였습니다. 옛날부터 이와 같은데 저인들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화왕은 말하기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였다 합니다.

- 설총, '화왕계'

* 백두옹(白頭翁) : 할미꽃을 이르는 말

* 사마(絲麻) : 명주실과 삼실

* 관괴(管蒯) : 기령풀(띠)와 왕골

* 대궐(代匱) : 궁한 나머지 판 것으로 대용을 삼음

[문제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80)

- ① 사물을 의인화하여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인물을 대비시키고 있다.
- ③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 ④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설정하여 교훈을 주고 있다.
- ⑤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 2] ㉠의 의미와 통하는 한자 성어는? 281)

- ① 유비무환(有備無患)
- ② 초지일관(初志一貫)
- ③ 다다익선(多多益善)
- ④ 미인박명(美人薄命)
- ⑤ 일석이조(一石二鳥)

[문제 3] ㉡를 노래로 변용하여 부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282)

- ① 가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것치 거문들 속조차 거물소나.
 아마도 것 희고 속 검을손 너뿐인가 하노라.
- ② 구름 빗치 조타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출 뉘 업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 ③ 구름이 無心(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하다.
 中天(중천)에 떠 이서 任意(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光明(광명)흔 날빛출 따라가며 답나니.
- ④ 백설(白雪)이 자아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온 매화(梅花)는 어느 곳에 피엿는고.
 석양(夕陽)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하노라.
- ⑤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採薇)도 하난 것가.
 비록애 푸새엿것인들 그 뉘 따헤 뉘나니.

[문제 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이 글의 관점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283

<보 기>

어느 여름날 신문왕이 설총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오던 비도 개었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니, 비록 진수성찬(珍羞盛饌)과 서글픈 음악이 있으나 고상한 이야기와 멋있는 익살로 울적한 마음을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대는 기이한 이야기가 있거든 나를 위하여 이야기하여 주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에 설총이 옛날 이야기 하듯이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화왕계’이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쓸쓸한 표정을 짓고 말하기를
 “그대의 우언(寓言)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있으니, 청컨대 이를 써두어 임금된 자를 경계하는 말로 삼으리라.” 하고 설총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다.

- ① 언로(言路)가 막히면 국시(國是)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②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입니다. 뚜렷한 주관으로 나라를 이끄는 소신 있는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세치용(經世致用)에 힘써야 합니다.
- ④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합니다. 바른 소리를 하는 정직한 신하를 가까이 두어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 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였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기득권을 누리려는 세력을 과감히 타파하고, 나라를 이끌어 갈栋梁지재(棟梁之材)를 찾아야 합니다.

비문학 독서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태양계에 존재하는 인간에게는 그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 사람들은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서 보내온 최초의 사진을 보고, 지구는 끝없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하나의 작은 세계라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거나 어떤 새로운 사실이 특별히 발견되지는 않았다. 단지 우리의 관점이 바뀐 것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준거의 틀(reference frame)’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준거의 틀을 합당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를 객관적 현실로 오인(誤認)하고 있다. 그동안 익숙해진 준거의 틀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초속 몇 천 마일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우주 밖으로 밀려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 고대 천문학자들은 하늘에 떠 있는 행성의 운행 궤도를 기록했다. 화성과 금성 등 여러 행성들은 하늘에 ‘이상한 곡선’을 그리며 운행한다고 믿었다. 천문학자들이 주전원(epicycle)이라 부르는 이 곡선은 지구에서 바라보는 행성의 운동을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다. 고대인들에게 이 곡선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모든 천문학적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고대인들은 행성의 궤도 곡선에 대한 그들의 준거의 틀을 남겨 놓았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은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처럼 움직이며 보는 것이 아니라 정지한 상태에서 행성들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준거의 틀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종전의 지구 중심 준거의 틀에서 태양 중심 준거의 틀로 전환된 결과 이상한 곡선이었던 주전원은 제대로 모양을 갖춘 타원 궤도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 ㉢중세 사람들은 왜 태양 중심 관점을 제안하였던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불순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오해했을까? 우리는 왜 지구 중심 관점을 ‘과거의 것’이라 부르고 태양 중심 관점을 ‘진보한 것’이라 부르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태양 중심 관점과 지구 중심 관점은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 반대는 그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 준거의 틀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 중심 관점에서 보는 주전원은 너무 복잡해서 중력과 행성의 운행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코페르니쿠스가 내세운 태양 중심 관점이 좀더 각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불분명했던 관계들을 명쾌하게 밝혀 놓았다.

㉥ ㉢준거의 틀이 변화한다는 것은 자연에 ㉤서로 다른 관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거나, 심지어 상충(相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오펜하이머가 늘 말했듯이 ㉤진리의 반대편은 이단(異端)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관점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관찰자는 기존의 관점보다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를 보다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관찰자는 자신의 준거의 틀을 전환한다. 새로운 관점은 관찰자에게 새로운 통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제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84)

- ① 달에서 보내온 사진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가 많이 바뀌었다.
- ② 우리는 우주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생활하고 있다.
- ③ 지구 중심 관점은 중력과 행성의 운행 관계를 명쾌하게 밝혀 각광을 받았다.
- ④ 태양 중심 관점은 타원 모양의 행성 운행 궤도를 '이상한 곡선'으로 바꾸어 놓았다.
- ⑤ 고대 천문학자는 행성 운동을 묘사하여 고대인이 천문학적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문제 2]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85)

- ① 무지개의 색깔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의 일곱 가지 색깔로만 생각한다.
- ② 달리는 버스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더 빨리 달리는 버스를 보면 뒤로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 ③ 영화를 보는 관객은 영사기를 통해 연속적으로 스크린에 비춰지는 정지된 모습을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④ 파랑거나 노란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세상은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
- ⑤ 시속 8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이 동전을 위로 던지면 동전이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문제 3] '코페르니쿠스'가 ㉡을 비판한다고 할 때, 이에 어울리는 말로 적절한 것은? 286)

- ①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군.
- ②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군.
- ③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군.
- ④ 나무에 올라가라 하고 흔드는 격이군.
- ⑤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격이군.

[문제 4] ㉢처럼 판단하는 이유는? 287)

- ① 불순한 의도가 없으므로
- ② 새로운 통찰이 필요하므로
- ③ 서로 다른 종류의 관점이므로
- ④ 명료하고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므로
- ⑤ 동시에 존재하거나 상충할 수 있으므로

[문제 5] ㉠ : ㉢의 관계와 유사한 것은? 288)

- ① 이론 : 가설
- ② 우주 : 지구
- ③ 부력 : 균함
- ④ 자극 : 반응
- ⑤ 점성술 : 천문학

비문학 독서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1908년에 아레니우스(S. Arrhenius)는 지구 밖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날아와 지구 생명의 기원이 되었다는 대담한 가설인 '포자설'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이 주장은 검증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과학적 이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 노벨상을 받은 크릭(F. Crick)이 1981년에 출판한 『생명의 출현』에서 '포자설'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아내조차 그가 상을 받은 이후 약간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였다.

[2] 지구 밖에 생명이 있다고 믿을 만한 분명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의 존재를 사실로 인정하려 한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 스펙트럼으로 별 사이에 있는 성운에서 메탄올과 같은 간단한 유기 분자를 발견하자, 이것이 외계 생명의 증거라고 하였다. 그러나 별 사이 공간은 거의 진공 상태이므로 생명이 존재하기 어렵다. 외계 생명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또 한 가지 증거는 운석에서 유기 분자가 추출되었다는 것이다. 1969년에 호주의 머치슨에 떨어진 운석 조각에서 모두 74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기 분자가 운석에 실려 외계에서 지구로 **①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3] 한편, 이와는 달리 운석이 오히려 지구상의 생명을 멸종시켰다는 가설도 있다. 한때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이 중생대 말에 갑자기 멸종했는데, 이에 대해 1980년에 알바레스(W. Alvarez)는 운석 충돌을 그 원인으로 추정했다. 이때 그는 **②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의 퇴적층인 K.T층이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③ 이 K.T층에는 이리듬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④ 이리듬은 지구의 표면에 거의 없는 희귀 원소로, ⑤ 운석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중생대 말에 **⑥ 지름 약 10km 크기의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고,** 그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발생하면서 수십 년 동안 햇빛을 차단한 나머지 기온이 급강하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공룡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명이 멸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4] 화석 연구를 통하여 과학자들은 지구 역사상 여러 번에 걸쳐 대규모의 멸종이 있었음을 알아내었다. 예컨대 고생대 말에 삼엽충과 푸줄리나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러한 대규모 멸종의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운석의 충돌도 그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오늘날에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유기물이 운석을 통하여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과, 운석으로 인해 지구상의 생명이 멸종되었을 가능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학자들이 많다. 하지만 지구상 유기물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세이건(C. Sagan)은 외계에서 온 유기물과 지구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모두 생명의 탄생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절충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기까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제기될 것이다.

[문제 1] 윗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기 어려운 것은? 289)

- ① 유기 분자는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성분일 것이다.
- ② 삼엽충은 운석 충돌에 의해 탄생하고 멸종했을 것이다.
- ③ 지구상에서 자생적으로 유기물이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 ④ 포자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 ⑤ 공룡 멸종 이후에 나타난 생물의 화석은 신생대 지층에서 발견될 것이다.

[문제 2]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290)

- ① 어느 한 주장에 입각해서 다른 주장을 논박하고 있다.
- ② 여러 주장의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한 다음 절충하여 마무리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주장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⑤ 여러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 3] 윗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1)

- ① 타당성을 검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② 중도적인 입장에서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
- ③ 최소한의 근거를 가져야 성립할 수 있다.
- ④ 다른 가설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 ⑤ 과학적 증거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

[문제 4] 역사학자들은 <보기>를 바탕으로, 4~6세기경의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유리구슬의 원산지를 추론한다. [A]와 <보기>의 추론 과정이 동일하다고 할 때, ㉠~㉥ 중 <보기>의 내용과 대응하지 않는 것은? 292)

<보 기>

- 4~6세기경에 축조된 신라 고분 금령총에서 유리구슬이 나왔다.
- 금령총에서 발굴된 유리구슬에서 알칼리 석회 성분이 검출되었다.
- 당시 아라비아에서만 알칼리 석회 성분이 포함된 유리를 생산했다.
-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신라에서는 유리를 제조하지 않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제 5] ㉠과 바꾸어 쓰기에 알맞은 것은? 293)

- ① 투입(投入)된다는
- ② 수입(輸入)된다는
- ③ 유입(流入)된다는
- ④ 편입(編入)된다는
- ⑤ 도입(導入)된다는